

1989년 발생 군산항 극조위에 관한 소고

강 석 구 , 염 기 대 , 소 재 귀

1. 서 론

1989년 9월 17일 군산항(내·외항)에서는 군산항검조소 설치후 가장 높은 조위치가 기록되었으며, 이때 군산내항 검조소의 조위는 783cm로서 이론적으로 계산한 200년 빈도 고극조위(769cm)보다도 14cm 더 높은 기록을 보였으며, 외항에서는 784cm의 조위를 기록하였다. 한편 1973-1987년 기간중 군산내항에서 관측된 고극조위는 751cm이며, 외항에서 1980-1986년 기간중 6년간의 고극조위는 755cm였다(1).

본 소고에서는 1989년 9월에 발생한 고극조위의 특성에 관하여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.

2. 본 론

고극조위 발생전후의 조위자료를 이용하여 단기간 동안의 평균해면과 조석성분을 검토하며, 이중 각 성분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조석성분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군산항 인근해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조석수치모델을 이용한다(2).

단기(혹은 장기)평균해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하천유량의 변화, 대기압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, 이들의 조석변위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모델결과의 이용 및 관측자료분석을 실시한다.

3. 결 론

현재까지 분석결과, 1989년9월의 고극조위는 단기적인 평균해면의 상승과 약최고 만조위 발생을 상회하는 조시조건이 합치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며, 평균해면상승 요인에 대한 좀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.

참 고 문 헌

- (1) 해운항만청. 1989. 군산지역 신항만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환경영향검토서.
- (2) 건설부. 1990. 군장산업기지개발 조사설계용역 보고서(제6권:수치모형실험편).